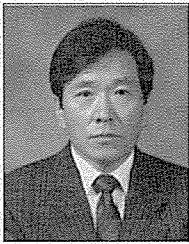


# 인터넷 시대의 삶



**차세중 약력**

- 1946년 경남 함안 출생
- 1964.02 함안고등학교 졸업
- 1970.11 지방공무원 임용(진해시)
- 1974.05 선진사료 입사
- 1988.05 (주)동창 입사
- 현재까지 근무 (전무이사)
- 1993.02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차 세 중 전무이사  
(주)동창

**이**젠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시가지엔 건물 하나건너 들어선 PC방에 컴퓨터가 있어 밤이나 낮이나 인터넷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컴퓨터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라도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을 헤쳐가면서 광활한 정보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 여행한다.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두려움도 없애준다.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날로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 외에 모든 서비스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유통시키며, 누구나 잘만하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도 심어준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인터넷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허다하게 본다. 그만큼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있다. 이젠 인터넷 없이는 갑갑해서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다.

출근과 동시에 PC를 켜고 이메일(E-Mail)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고 필요한 자료를 찾고 챙긴 후 그 날의 일과를 계획하는 것도 인터넷에 얽매인 일상생활로 변해버렸다.

글을 쓰는 사람들도 원고지대신 컴퓨터를 사용하고,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책을 내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는다.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에서 디지털 출판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글을 띄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집을 짓는 건축가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나 제작사,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 자장면 한 그릇에서부터 대형 유통상가의 공산품,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에 이르기까지 원하면 무엇이든 예약에서부터 사고 팔고 지정한 일자에 장소까지 배달도 된다. 모든 것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얼마나 편한 세상인가./ 아니 얼마나 경이로운 세상인가.**

인터넷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창조자이고, 가장 거대한 시장이며, 가장 거대한 출판사이며, 가장 빠른 유통망이다. 이런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오래 전부터 꿈꾸어 왔던 그런 세상이었는지 모른다.

늘 먹을 것이 부족하여 채 여물지도 않은 초랑벼를 골라 몇 줄 베어다가 가마솥에 넣어 찌서 말려 디딜방아나 도구통에 넣어 껍질을 벗겨 만든 찌쌀을 먹었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쌀이 남아돌아 처리문제로 정치판에서 싸우고 있으니 세상이 변해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켜보면 사이버 공간으로 표현되는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정보탐색이나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오락기구로 인식하며 삶을 왜곡시키기도 하며, 현실세계를 외면한 채 사이버 공간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사이버 중독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유용한 교육도구로 각광받아야 될 것이 역기능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思考)발달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사이버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음란물접촉, 채팅에서 원조교제까지의 가교 역할도 한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숙제에서부터 박사학위 논문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인터넷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갖게 되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여기서 일확천금이 나오기를 바라다가 쪽박을 차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바람처럼 인터넷은 모든 것을 다 해 주지 않는다.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현명한 사람만이 성공의 길을 걷는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사이트가 사업적으로 성공하여 돈을 벌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생겨나지만 이들 가운데 단 1%도 성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3개월 이내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매달려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 진정 행복에 이르는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된다. 인터넷에 몰입하는 이들이 늘어남으로써 개인의 존재 가치가 네트워크에 함몰되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없다. 이름대신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가 대신하는 삶. 자신의 현재보다 가상 공간에서의 무형의 자기에 더 매달리는 현상으로 인하여 점차 외부세계와의 단절을 만들어 간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화를 앞당겼고 세계화는 경쟁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인터넷을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즐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이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하겠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기본적인 윤리와 예절이 있음을 강조하는 「네티켓」이 있어야겠다.

날마다 인터넷을 꿈꾸기보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꿈꾸고 인터넷 속의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이의 손을 더 많이 잡아주고 꿈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 ㉞

※이 글은 ㈜동창의 차세중 전무님께서 쓴 글로, 월간 한국 시사에서 발간하는 월간 『한국시』의 2005년 11월호에 게재된 이달의 수필가상 수상 작품입니다.